

고병일 은행장 “새로운 물결 2023, 도전 광주은행”

2023년 상반기 경영전략회의의 “어려운 경영환경 변화·혁신으로 돌파”

올해 고병일 은행장이 처음 이끄는 광주은행은 '새로운 물결 2023, 도전 광주은행' (The New Wave 2023, Challenge KJB)을 구호로 내걸었다.

광주은행은 지난 19일 광주시 동구 대인동 본점 KJ상상마루에서 2023년 상반기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고 은행장은 '기본에 충실하고,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자'는 뜻을 담은 새로운 구호 '새로운 물결 2023, 도전 광주은행'을 제시했다. 이 글귀에는 어려운 경영 환경을 변화와 혁신으로 돌파하자는 임직원들의 강한 의지가 담겼다.

그는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 3고(苦) 시대의 부작용으로 2023년에는 경기 침체와 신용위험 증가, 성장동력 부재 등 3고 시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새 구호를 만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광주은행은 지난해 수익성을 개선하고 비용 구조를 내실화하며 자산 건전성을 안정화하는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는 영업 위축과 건

전성 및 수익성 악화에 대비하고, 비이자사업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은행장은 “조우량 100년 은행의 비상을 목표로 기본에 충실해 어떠한 파고에도 흔들리지 않는 기본이 탄탄한 은행, 변화에 유연한 대처 능력과 경쟁력을 갖춘 작지만 강하고 역동적인 은행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며 “이와 동시에 고객 가치와 사회적 책임을 기본으로 우수한 경영성과를 이루고, 지역 밀착경영에 집중해 지역과 상생 발전함으로써 지역 대표은행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자”고 덧붙였다.

고 은행장은 앞서 취임사를 통해 '기본'에 충실할 것을 강조하면서 '고객'과 '실력', '확실한 경쟁력'을 갖춘 내실 있는 성장을 강조했다.

그는 올해 추진할 경영전략을 영업·미래·상생 부문으로 나눠 소개했다.

주요 경영전략으로는 ▲핵심 영업 경쟁력 확보·선제적 위험 관리 강화를 통한 수익기반 강화 영업 전략 ▲비용 효율성 제고·디지털 채널 경쟁력 강화

·해외 사업 가치 제고를 통한 미래 경쟁력 확보 전략 ▲그룹 시너지(상승효과) 강화-ESG 기반 사회 공헌 강화를 통한 상생 전략 등이 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경영방침은 ▲능동적이고 똑똑한 조직 ▲능력 중심 인사문화 확립과 인재 육성 확대 ▲현장 중심의 정도 영업과 데이터 중심 체계적인 마케팅 추진과 건전성 관리 ▲책임경영을 통한 공정한 성과평가 ▲소통하는 기업문화 등으로 정했다.

올해 창립 55주년을 맞는 광주은행은 기준금리의 급격한 인상, 경기침체 우려에 사전적으로 대응해 고정이하여신비율과 연체비율 등에서 은행권 최고 수준의 자산 건전성을 유지할 방침이다.

이날 광주은행은 경영전략회의에서 지난해 우수 실적을 거둔 부점과 직원을 시상하고 영업 우수 사례를 공유했다. 또 지난해 경영성과와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각오를 새롭게 다졌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고병일 광주은행장이 최근 광주시 동구 대인동 본점에서 열린 '2023년 상반기 경영전략회의'에서 변화와 혁신으로 위기를 돌파하자는 '새로운 물결 2023, 도전 광주은행' 구호를 소개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난방비 폭탄에 생필품값 줄인상 '서민들 더 춥다'

라면 가격 10% 안팎 오르고 흰우유 1리터에 3000원 근접 내달 생수 가격 인상 예정...주세 인상에 맥주·막걸리까지

전국에 한파가 몰아치면서 난방비 폭탄'을 맞은 가구가 속출하는 가운데 라면, 우유 등 먹거리 가격 인상이 잇따르며 서민들의 시름을 깊게 만들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국내 주요 라면회사 4곳은 순차적으로 가격을 올렸다.

농심은 지난해 9월 라면 출고가를 평균 11.3% 인상했고 팔도와 오투기는 지난해 10월 가격을 각각 평균 9.8%, 11.0% 올렸다.

삼양식품 역시 지난해 11월 라면 가격을 평균 9.7% 인상했다.

밀가루, 팜유 등 재료가 상승뿐 아니라 물류비, 인건비 등 생산비용이 올라 제품가격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이유였다.

우유 원유(原乳) 가격 인상과 물류비 상승 등에 따라 마시는 우유 가격도 지난해 11월 줄줄이 올랐다.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우유제품 가격을 평균 6% 인상했고 이에 따라 흰 우유 1ℓ 판매가는 대형마트 기준으로 2800원대가 됐다.

남양유업과 매일유업 역시 흰 우유 제품 가격을 각각 평균 8%, 9.6% 인상했다.

우유제가 우유 가격을 인상하면서 우유가 들어가는 빵, 아이스크림 등이 오르는 '밀크플레이션'도 확산했다.

동서식품은 지난해 12월 인스턴트 커피, 커피믹스 등 제품 출고가를 평균 9.8% 올렸다.

재료가 상승과 에너지 비용 증가에 따라 겨울철 대표 서민 간식으로 꼽히는 불어빵 가격도 5년 전 대비 배 이상 올랐다.

한국물가정보에 따르면 올겨울 불어빵 2마리 가격은 기본 1000원 수준으로 지역에 따라서는 1마리에 1000원인 곳도 있었다.

내달에는 생수 가격 인상도 예정되었다.

제주도개발공사는 내달 1일부터 제주도산수의 출고가를 평균 9.8% 올린다.

제주산수가 국내 생수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후 생수업계의 가격 인상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밖에 주류 가격 인상도 예고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반출·수입 신고하는 맥주와 막걸리에 대한 세금을 각각 1당 30.5원(885.7원), 1.5원(44.4원) 인상한다. 주류업체들은 보통 정부의 주세 인상 직후 가격을 인상하기 시작한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표준지 공시가 14년만에 내렸다

광주 6.26%·전남 6.12% 하락...주택·토지 보유세 내려갈 듯 충장로2가 광주우체국 맞은편 m²당 1517만원 10.2% '뚝'

광주·전남지역 표준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가 2009년 이후 14년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올해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주택과 토지 부문 보유세도 다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광주지역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6.26% 하락했다. 또 표준주택 공시가격 역시 지난해보다 3.47% 떨어졌다.

전남지역도 표준지 공시지가는 6.12%,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2.98%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 토지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5.92%,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5.95% 하락했다.

공시지가가 하락하면서 광주에서 가장 비싼 땅으로 꼽히는 동구 충장로2가 광주우체국 맞은편 역시 기존 m²당 1690만원에서 올해 1517만원으로 10.2% (173만원) 내리게 됐다.

앞서 해당 토지의 개발공시지가가 2021년 m²당 1590만원이었다는 점에서 2년 전보다 가격이 더 떨어지는 셈이다.

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주택과 토지 부문의 보유세도 작년보다 하락할 전망이다. 주택은 올해 공시가격 인하에 지난해 말 개정된 종합부동산세 개정

효과 더해져 세부담이 2020년 수준 이하로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말 1가구 1주택 중부세 대상자를 공시가격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기본 공제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렸다. 2주택자의 중부세 중과세율(1.2-6.0%)도 폐지하고 일반세율도 종전 0.6~3.0%에서 0.5~2.7%로 낮춘 바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 3월 17일부터 열람에 들어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두 자릿수 하락 폭이 예상됨에 따라 보유세가 2020년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중과세에서 벗어난 2주택 보유자의 세부담 인하 폭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보인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기아 스포티지, 英 왓 카 '최고의 패밀리 SUV'

실용성 갖춘 실내 디자인·주행 성능·합리적 가격 호평

기아의 스포티지가 영국의 저명한 자동차상에서 '올해의 패밀리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사진>로 선정됐다.

기아는 영국의 저명한 자동차상사로 꼽히는 '2023 왓 카 어워드'에서 스포티지가 '올해의 패밀리 SUV'로 뽑혔다고 25일 밝혔다.

1978년 처음 시작된 올해로 46회를 맞은 왓 카 어워드는 유럽 내에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영국 대표 자동차 전문 매체 '왓 카'가 주최하는 자동차 시상식으로 올해의 차 등을 포함해 차급별 최고의 모델을 선정하고 있다.

스포츠지는 실용성을 갖춘 실내 디자인과 뛰어난 주행 성능은 물론 합리적인 가격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아 ▲BMW X3 ▲닛산 아리아(Ariya) ▲스코다 카록(Karoq) ▲볼보 XC60 등 경쟁차종을 꺾고 올해의 패밀리 SUV로 선정됐다.

이번에 평가된 신형 스포티지는 지난해 2월 영국

에서 출시돼 한 해 동안 2만9655대가 판매됐으며, 이는 2022년 영국에서 판매된 전체 신차 중 6위에 해당하는 판매량이다.

폴 필포트 기아 영국법인은 "스포츠지가 왓 카에서 최고의 패밀리 SUV로 선정돼 자부심을 느낀다"며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등 다양한 라인업을 갖춘 스포티지로 유럽 시장을 더욱 공격적으로 공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기아의 플래그십 전기차 EV9은 왓 카 독자들이 뽑은 '가장 기대되는 차'로 선정됐다.

올해 상반기 출시 예정인 EV9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를 기반으로 하는 대형 전동화 SUV로, 혁신적인 기술과 우수한 상품성을 갖춘 기아의 플래그십 전기차다.

기아는 이번 수상으로 왓 카 어워드에서 ▲2018년 모닝(현저명 피칸토, 올해의 시티카) ▲2019년 니로 전기차(올해의 차), 모닝(올해의 시티카) ▲



2020년 모닝(올해의 벨류 카) ▲2021년 쏘렌토(올해의 대형 SUV) ▲2022년 EV6(올해의 차) 등 6년 연속 수상 기록을 달성했다.

한편, 기아 오토랜드 광주의 주력 생산 모델인 스포티지는 글로벌 시장에서 지난해 45만2068대가 판매되며 기아 단일차종 판매 1위를 기록하는 등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해양에너지 워크숍 “도시가스 미공급 줄이자”

광주·전남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해양에너지는 최근 광주시 광산구 하남동 분사 대강당에서 '도시가스 적가·조기 공급을 위한 워크숍'을 열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겨울철에 도시가스 공급 요청이 몰리고 시설 공사가 집중되는 현상에 대비하고자 마련됐다.

해양에너지 임직원들은 고객의 도시가스 공급 신청일부터 공급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해양에너지는 지난해 23일 광주시가 개최한 '광주 도시가스 취약지역 공급시설 설치 지원 방안' 정책 토론회에 참가해 개선 방안을 고민하기도 했다.

오광호 해양에너지 경영마케팅본부장은 "신규 공급 대상처에 도시가스 적가·조기 공급을 통해 지역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최대한 많은 고객에 따뜻한 에너지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조달청 “자체 구매 범위 2배 확대”

광주지방조달청은 오는 3월부터 수요기관의 자체 구매 범위를 2배로 확대 시행할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시행에는 국가·지방계약법령에서 소액수의계약 범위를 개정된 내용이 반영됐다.

'소액수의계약'은 소액 구매 때 신속하고 효율적인 계약집행을 위해 경쟁입찰 절차를 간소화한 제도이다.

조달청은 개정 내용을 반영해 수요기관이 조달청에 의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구매하는 범위를 물품·용역 기준 5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시설공사의 경우 종합공사(4억원 이하), 전문

공사(2억원 이하), 기타공사(1억6000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자체 구매가 가능해진다.

단 정부 보조금 지원 연구개발 관련 구매, 수요기관 추천 사회적 약자 기업 대상 수의계약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구매는 현행대로 조달청이 구매를 대행한다. 조달청은 소액수의계약 업무 안내서를 마련해 나라장터(g2b.go.kr) 등에 게시하고, 공공조달역량개발원 등을 통한 수요기관 대상 관련 교육도 확대할 계획이다.

오는 7월부터는 지역·면허·실적 등을 기준으로 수요기관의 조건에 맞는 업체정보를 제공하는 시설공사 수요 맞춤 시설업체 연계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LH, 자립준비청년 임대주택 오늘부터 청약 접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6일부터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400호에 대해 수시 청약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되는 주택이다.

LH는 보유하고 있는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자립준비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다.

거주 기간은 최장 6년이며 임대 조건은 인근 시세의 40% 수준이다. 보증금은 100만원으로, 월 임대료는 주택마다 차이가 있다.

현재 무주택자로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 예정이

거나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립준비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별도 소득·자산 기준은 없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28.57(+33.31)
▲ 코스닥	732.35(+14.38)
↓ 금리(국고채 3년)	3.285(-0.045)
↓ 환율(USD)	1231.70(-3.80)

세일글

“광주·전남 중기 수출역량 강화 노력”

이동원 무역협회 광주전남본부장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의 수출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 신입 본부장으로 이동원(53·사진) 전 호치민 지부장이 25일 취임했다.

이 신임 본부장은 1995년 한국무역협회에 입사한 뒤 취업지원실장, 베트남 호치민 지부장을 역임하는 등 무역에 대한 다방면의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본부장은 취임 이후 광주·전남지역 수출기업들을 위한 해외바이어 발굴 지원,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시장개척단 파견, 무역아카데미 운영, 수출기업화 컨설팅 및 연계 예로 발굴, 광주전남기업협의회 운영 등 무역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총괄할 예정이다.

이동원 본부장은 “무역협회 지역본부의 역량과 수출 유관기관들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 무역업계의 수출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며 “지역의 무역 저변을 확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